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내달 5일 장애인에 특별개장

월요일 정기휴일에 운영...안전요원·자원봉사자 배치

광주시는 장애인들을 위해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8월5일 특별 개장한다.

시는 도심 피서지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정기휴일에 맞춰 장애인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이날 하루 개장한다. 이

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물놀이장은 1000㎡ 규모로 평균 수심은 20cm다. 주요 물놀이시설로는 물놀이조형놀이대, 워터드롭 등 10종이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다.

장애인들은 인솔자(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안전한 물놀이

를 위해 간호사와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고 비상약품을 비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인근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본격적인 더위에도 휴가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휴식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특별 개장의



날에는 매년 150명 이상의 장애인 다. 과 보호자가 방문해 물놀이를 즐겼

서은홍 기자

“언제든지 부르면 OK”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강진군은 지난 25일 강진군 복지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복지기동대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 복지기동대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지난 2월 발족...읍·면 단위 5~20명 활동

데 치러진 이날 교육은 서기수 강사(상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가 초청되어 '민관협력 우수사례 및 복지기동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서기수 강사는 상무2동에서 '쌍쌍일촌 맥가이버' 활동을 진행하며 겪었던 경험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업 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촘촘한 복

지안전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을때 군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2월 발족했으며 강진군새마을회 남·녀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읍·면 단위로 5~10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6년부터 진행된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프로젝트에 투입돼 상반기에 34가구의 도배 및

장관 교체, 창호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강상재 강진군 새마을회장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서서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 "생업과 새마을지회 활동으로도 벅차질 텐데 강진군과 새마을지회 업무협약으로 살기 좋은 강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복지기동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기동대원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나주 빛가람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교통약자층 이용 편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빛가람 치유의 숲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길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치유의 숲을 조성한 이래 연간 18만 명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1975년 현 위치로 이전한 이래 산림유전자원으로 조성한 수목 882종, 3만 7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도심 일대에서 지친 이들에게 일상 속의 치유'를 실현하는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무장애나눔길'은 그동안 교통약

자층이 활동 제약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연구소의 아름다운 숲을 폭넓게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숲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폭넓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하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빛가람 치유의 숲'이 무장애나눔길을 조성, 산림 휴양·치유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화식 소장은 "무장애나눔길의 의미에 걸맞게 교통약자층이 활동 제약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체계적인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등 연구소 내 시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김정환 기자

KISA, 창립 10주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혈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

은 학생 방학과 직장인 휴가 등으로 헌혈 참여가 부족해 응급환자 혈액 수급이 어려운 계절이다.

이에 KISA는 혈액 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

하고자 전 직원 대상 하절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KISA는 이번 헌혈 캠페인 외에도 장애인 자립지원 물품기증 캠페인에 참여하고, 광주·전남지역 사회경제기업에 중고 ICT 자산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시 '심뇌혈관질환건강지킴이 교실' 2개소 운영

광양시는 보건진료소 2개소(월길, 황길)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꾸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까지 주 1~2회씩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 및 운동 교육, 영양 관리, 심방세동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지난 4월과 8일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 전과 후의 건강 상태 변화 확인을 위하여 신체계측 및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실시했다.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예쁜 티셔츠도 나눠주고 직접 와서 건강 체크도 해주니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이다."라며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윤희 방문보건팀장은 "지속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정기적인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생활실



친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